



불법호객 극성 상무지구 유흥업소 기상천외한 '술값 바가지'

# 취객들, 이렇게 당했구나

“술값이 110만원이라고요?”  
막 잠에서 깬 직장인 김모(53)씨는 웨이터가 내민 계산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지난 4월 8일 새벽 1시 건물 지하부터 꼭대기 층까지 유흥업소가 들어찬 이른바 ‘호남의 라스베이거스’ 상무지구 한 건물의 유흥주점 룸에서다.  
웨이터는 “사장님, 원저가 한 병당 30만원이니 3병 90만원, 여종업원 한 명이 2시간이니 봉사료 20만원 총 110만원이겠습니다”고 했다.  
김씨는 “불금(불타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밤 1차로 음식을 곁들여 술을 마시고 동료와 헤어진 뒤 무작정 상무지구 밤길을 걸었다. 나이 권을 넘었지만 여태 ‘총각’신세여서 ‘좋은데 있나’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걸다가 밤 11시께 20대 호객꾼의 힘에 넘어가 S유흥주점에 갔다. 양주 1병을 시키고 여종업원이 들어와 얼마

손님 화장실 간 사이 빈 양주병 놔두고 “110만원 내라”  
업소 발뻘에 CCTV 확인...피해자 현금 40만원도 사라져  
수차례 상시 단속 필요성 지적에도 관할구청은 뒷집만

간 흥겨운 시간을 보내다 이내 잠에 들어 버렸다. 한 주간 쌓인 피로에 직전에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마셨던 술, 여기에 양주까지 들어간 탓이었다.  
김씨는 술값이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테이블에 양주병 3개가 있었고 여종업원도 자신이 부른 것이 사실인 지라 지갑을 열었다. 이때 김씨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와 함께 있어야 할 현금 40만원이 지갑에서 사라진 것이다.  
업주 측은 “술값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사라진 돈도 당신들이 훔쳐간 것 아니냐”고 김씨가 따지자 “증거를 대라. 비싼

술 마셔놓고 왜 그러느냐”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S유흥주점 내부 CCTV를 확보, 김씨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여종업원이 룸 밖으로 나와 소리치자 웨이터가 빈 양주병 1개를 들고 재빨리 가져다준 사실, 남성의 지갑을 종업원이 들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죄모(34)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측이 혐의사실 일부(현금 40만원 절도)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 상무지구에선 심심찮게 유사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객꾼(일명 빼끼) 손에 이끌려 간 술집에서 바가지 쓴 남성’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다보니, 관할 구청이 호객꾼 단속에 뒷집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한 상시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일시 단속에 나섰다 손을 놓다보니, 호객꾼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벼락이 손님들 피겨나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무지구가 광주사정,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호남지방통계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한 광주의 중심이라는 점도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펼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사실일까 선체조사위, 조사 범위 포함 검토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춘 걸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 지연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선체조사위는 23일 세월호 수습현장인 목포신항에서 제3차 소위원회 회의와 제6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인양 방식 결정 및 변경, 인양을 결정하고 3년이 지나 인양이 이뤄진 경우, 선체 훼손 등 인양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선체조사위가 조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 과적, 부실 고박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 조사 방식도 논의한다.  
선체조사위는 인력, 조직 구성 등을 마치고 미수습자를 찾는 객실 수색이 완료되는 이번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체 조사,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에 다른 분야 전문가를 추가 배정했고 별정직 직원을 채용해 선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전 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지난해 4·13총선에서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무안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8월13일부터 9월 21일 사이 무안군 무안읍 미래포럼 사무실에서 강모씨로부터 회비 5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7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 전 군수는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고 세미나를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 “남구의원 ‘흥기 소동’ 책임져라” 국민의당에 촉구

전공노광주본부·시민단체 차 없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국민의당 지도부는 최근 마련된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노조와의 면담에서도 ‘지난 19일 해당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의원 개인의 일탈을 당에서 책임질 수 없다’ 따위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당은 이○○의원의 정사 내 흥기소동 사태에 대한 공식사과를 하고, 남구의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해당 의원이 조속히 제명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

## “왜 경적 울리냐” 따지는 주부 폭행한 배달원 경찰서행

○...사소한 시비 끝에 초등학생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30대 주부를 위협한 혐의(폭행)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중국음식점 배달원인 송모(41)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중국음식점 앞 길 위에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서 있는 주부 A(여·39)씨를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협.  
○...경찰은 “송씨가 길 위에 서 있는 A씨에게 비켜달라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는데 A씨가 ‘왜 경적을 울리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5·18 마지막 수배자

### 윤한봉 선생 10주기

### 내일 5·18묘지서 추모제

‘5·18 마지막 수배자’ 합수(合水) 윤한봉 선생 타계 10주기 추모행사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는 24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윤한봉 선생 타계 10주기 추모제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추모제는 선생을 기리는 회원들의 합창공연, 오수성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추모사 낭독, 선생의 미국 망명시절과 귀국 후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 추모사 낭독, 추모공연 순으로 이어진다.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 ‘윤한봉-518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를 헌정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소설가 안재성씨는 선생이 생전 펴낸 회고록(운동화와 뚱가방, 망명)을 비롯한 구술자료, 강연록, 지인들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평전을 엮었다.  
1948년 강진에서 태어난 선생은 5·18민주항쟁에 참여해 수배를 받았다. 5·18 이듬해 4월 무역선을 타고 미국으로 몸을 피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야 12년의 정치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문화여성들이 만든 천연비누  
광주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건강한 아기와 행복한 엄마를 위한 출산준비교실’에 참가한 다문화임산부 여성들이 22일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해고 양심 품고 재개발 조합장 살해 60대 긴급체포

해고 통보에 양심을 품고 아파트재개발 조합장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여수경찰은 22일 아파트재개발 조합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여수의 모 아파트상가 위원장 문모(6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낮 12시15분

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모델하우스에서 흥기 난동을 벌이고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30여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문씨의 범행을 말리던 다른 조합관계자도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러갔다”고 해고 통보를 받자 욕하는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 010-6838-1230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 모텔

- 전남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